

‘호남 현역의원 물갈이’ 관심 집중

민주당 개혁특위, 오늘 광주·전남 공청회
전북선 “3선 이상, 여론조사 평가로 교체”

20일 개최되는 민주당 개혁특위의 광주·전남지역 공청회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4일 전북지역 공청회에서 야권연대와 함께 협력 국회의원 물갈이론이 강력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공청회에서도 협력 국회의원 물갈이론이 제기된다면 민주당의 차기 총선 공천에서 ‘호남 물갈이론’이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19일 민주당 개혁특위가 당 지도부에 제출한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 특위 활동보고’ 문건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북도당에서 진행된 전북지역 공청회에서는 협력의원 물갈이론이 주요 논의사항에 포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다음 총선에서는 물갈이와 쇄신 공천이 화두며 야권 연대가 가능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북지역의 3선 이상의 국회 의원은 모두 물갈이 대상이며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지역구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전북지역 초·재선 국회의원들도 여론조사 등 객관적 평가지수를 통해 물갈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 전국 단위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순번을 결정하자는 의견과 함께 지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지역에 추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

시됐다.

여기에 여성을 배려하는 개혁 공천과 당원의 일제 정리, 당원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광주·전남 지역 공청회 결과에 민주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에 이어 광주·전남지역 공청회에서도 협력의원 물갈이론이 제기된다면 차기 총선 공천에서 호남지역 협력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론이 급부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 동안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온 것과 관련,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에서 ‘협력 국회의원 물갈이론’이 강력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연 확대를 위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협력 국회의원들의 기득

권 최소화를 위한 평가지수 도입 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차기 총선에서의 광주·전남지역 야권 연대 방안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지역 민심의 자본에는 차기 총선에서 호남 지역 정치권의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된 상태”라며 “이번 민주당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민심의 기류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개혁특위의 광주·전남지역 공청회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우체국 보험회관 14층에서 열리며 이종걸, 문학진 의원이 토론회 발제를 하고 패널로는 선학대 전남대 교수, 김영태 목포대 교수, 전갑길 전국회의원, 오승주 전남교육감연대 공동대표, 최영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참여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美·中 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영향 주목

후진타오 국빈급 방미, 전략적 파트너십 합창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오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전용기편으로 도착, 조 바이든 부통령 부부의 영접을 받는 것으로 3부4일간의 미국 국빈방문은 정식으로 시작됐다.

한국전력은 겨울철에 전기요금을 청탁한 가구의 단전을 미루기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가 주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전에 겨울에는 단전 조치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시·군·구별로 ‘하파대책 종합지원상황’을 운영해 상수도와 계량기 등과 등 비상 상황을 24시간 관리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등의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요양원과 장애인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난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겨울철에 전기요금을 청탁한 가구의 단전을 미루기로 했다.